

실습 위주 특성화고 온라인 정상수업 '불능'

광주 마이스터고 등 12곳 실습 지원 대책 사실상 없어 기능대회 선수들 훈련도 못해 실무교과 지원 대책 절실

실습 과목은 연속 수업을 통해 1차시는 이론 수업을 하고, 이후 배운 내용으로 실습장에서 소프트웨어 시연이나 선반 밀링 등 기계장비로 실습을 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론부터 먼저 가르치고, 실습은 등교 이후 한다면 수업 효과는 이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특성화고의 한 관계자는 "전문교과(도제과정)에 해당하는 실무과목으로 자동차 인증 정비, 차체 정비, 새시 정비 등 다양한 실무 과목이 있는데 이들 과목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실무교과를 통해 익힌 기술로 자격

증을 취득하고 향후 취업을 하거나 제휴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해야 하는 고3의 경우는 어려움이 훨씬 더하다.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취업박람회와 기능경기대회, 자격증 시험 등 취업 응용문의 일정이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반기 예정됐던 기업들과의 연계 과정이나 현장 실습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학교 대표 선수들은 등교 금지가 장기화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용접, 선반, 밀링머신 등 출전 분야 선수들은 집에서 연습할 수 없어 장비가 있는 학교로 가야 하는데 등교가 금지되면서 훈련을 못하고

있으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와 학부모사이에선 "학생들이 전국대회 금메달을 획득해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은 연습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 선수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안전 확보 방안을 만들어 예외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우재학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실습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공교과별 맞춤형 실습수업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무역량 함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단독방에서 출석 체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 9일 광주시 서구 상일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당 교사들이 온라인 개학식을 열고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출석 체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7 달뜨기 21:38
해질 19:01 달집 07:39

포근한 주말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6/18	보성	구름많음	3/15
목포	구름많음	6/13	순천	구름많음	7/15
여수	구름많음	9/14	영광	구름많음	3/14
나주	구름많음	3/18	진도	구름많음	6/14
완도	구름많음	7/16	전주	구름많음	4/18
구례	구름많음	4/17	군산	구름많음	4/14
강진	구름많음	5/17	남원	구름많음	3/17
해남	구름많음	5/17	축산도	구름많음	6/12
장성	구름많음	3/1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면바다(북)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면바다(남)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서부	안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면바다(서)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면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53 21:07
여수	04:27 16:36	10:39 23:09

◇ 주간 날씨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	☁	☁	☁	☁	☁	☁
6/14	5/18	6/16	6/22	7/21	7/21	7/21

전남교육청 원격수업 긴급지원 콜센터 운영

본청, 시·군교육지원청에 설치

전남교육청이 온라인 개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청과 22개 시·군교육지원청에 '원격수업 긴급지원 콜센터'를 운영한다. '고3·중3'부터 시작한 원격수업에 맞춰 운영에 들어간 콜센터는 정규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활동을 펼친다.

본청 콜센터의 경우 전남교육연구정보원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설치한다. 전남청의용합교육원을 중심으로 본청 5개 관련 부서가 참여해 원격수업 지원

팀·원격플랫폼·시스템 지원팀·학생 학부모 지원팀으로 나눠 활동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jne.go.kr/) 초기화면에 배치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9일(고3·중3), 16일(고1·2·중1·2·초4·6), 20일(초1·3) 등 단계적 온라인 개학 일정 소개와 함께 각종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탑재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리한 Q&A, 학교급별 원격수업 운영계획 등 온라인 개학 정보도 다양하게 실려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총선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광주시교육청이 4·15총선과 온라인 수업에 대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특별점검 기간 동안 총선 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홀한 경우를 비롯해 품위 훼손, 직무태만,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불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집중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교수팀 고통 없는 영상진단법 개발

광음향 융합영상 진단법

전남대학교가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고, 인체에 고통도 주지 않으면서 몸속 깊은 곳의 장기들을 관찰할 수 있는 '광음향 융합영상 진단법'을 개발했다. 전남대 이창호(핵의학교실)·김형우(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은 장파장 빛(1064nm)에 대한 강한 흡수도를 가진 니켈 기반의 나노입자 조영제를 이용해 심부조직의 고해상도 영상화가 가능한 광음향 융합영상 기술을 개발했다. '광음향 영상'이란 빛을 인체에 쏘이면 인체조직이 순간적으로 열팽창을 하면서 음파(광음

향)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초음파 센서로 감지해 영상화한 것을 말한다. 공동연구팀은 사용되는 빛의 파장이 길어질수록 생체 투과도가 높되 세포 손상은 적다는 점에 착안, 장파장 레이저의 사용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조영제 개발에 나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 기술은 생체 적합성 검증은 거쳤고, 쥐의 림프노드, 위장관, 방광에 나노입자를 주입해 최대 3.4cm 깊이에서 광음향 영상을 얻어내는 실증까지 마쳤다. 기존의 기술들은 대개 단파장 레이저를 사용해 피부 아래 수 mm의 연구조직만 관찰할 수 있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개교 40주년 기념 모든 행사 연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광주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개교 40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연기했다. 9일 광주대에 따르면 호남학원 창설 50주년과 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일인 5월 13일로 예정된 기념식과 만찬 행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광주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든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에 감사하는 40주년'이란 주제로 추진되던 기념공연과 전시회, 학술행사, 쿠키·빵 나눔 행사 등도 미뤄졌다.

민중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에 개교한 광주대는 서슬이 퍼렇던 군부정권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1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최초로 '5·18광주민주화쟁쟁'을 교내에 건립하는 등 5·18의 아픔을 함께해 왔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광주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본받아 인권존중과 민주적 지성인 양성이라는 창설자의 건학철학을 교육이념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아 광주대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이기 위해 지역민과 동문, 학생들과 함께 할 수 기념행사를 준비해왔지만, 내년으로 모두 연기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